

칼럼

장기채 주필



### 인구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다

출산율 이대로 가면 2100년엔 인구 절반이 노인 된다는 통계수치가 나온다.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뭐니뭐니해도 저조한 출산율일 것이다.

최근 10년간 출산율을 보면 그 수치가 엄청날 정도로 낮아지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의 저하는 그 뒷배경에 많은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우선 가중되는 취업과 경제난이다. 따라서 결혼 평균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뒤늦게 혼인에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덩달아 저조해지기 마련이다.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당장 결혼하여도 아이를 가질 여유가 안되는 자라 산모의 출산까지도 갈수록 늦춰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차이 나게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지금은 옛날 부모를 방식처럼 그저 낳는 대로 일단 키우는 방식

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인해 하나의 아이에 거는 기대심리가 매우 올라간 상황이다.

유아기 때부터 조기 교육들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아이하나 성장시키려면 돈이 비교되는 수준으로 치솟은 게 한국의 저조한 출산율의 한 몫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이켜 보면 과거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부양은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없었다.

대가족 체제였기 때문에 노인의 부양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개인, 가정차원의 문제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핵가족 체제로 전환되어 버렸다.

더이상 노인 부양을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하면 국가차원의 문제가 되었으며 사회적 위험이 되었다.

일본의 '다마 신도시' 이 도시는 인구 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도시다.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 한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201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이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는 1.3명 미만의 초저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가면 2100년엔 노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것이라는 '인구위기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노인 인구 급증과 일할 수 있는 인구 급감이 함께 진행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먹여 살려야 하는 노인인구(노인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었다. 출산율이 답보상태면 2030년엔 노인부양비가 배 이상 증가해 38.7명이 된다. 2050년엔 5배 증가한 75.4명에 이른다.

2070년엔 젊은이 100명이 노인 99.1명을 2100년엔 108.9명을 먹여 살려야 할 정도가 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

면 적어도 출산율을 2.1명까지는 끌어 올려야 한다. '출산율 2.1명 유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100년 1309만 명으로 예측된다.

초저출산 시나리오보다 총인구가 2087만 명 많지는 것이다.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늘다가 2063년(36.6%)을 기점으로 다시 줄어든다.

인구 위기를 예방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뿐이다.

또 일·가정 양립,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이고 교육·안전·고용·보건복지 등의 영역을 개혁해 출산과 양육이 고통보다 즐거움과 희망을 안겨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법이라고 봐야한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금껏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해서 너무나 경시해 왔다.

성장만을 생각하고 복지는 나중의 문제라고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성장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게 되었고 더불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어쨌든 인구자체가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한다.

### 社 說

### 농어촌민박 요건 강화해야

'안전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농어촌민박의 안전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농어촌민박을 새로 개설하기 위한 요건도 한결 까다로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누출 사망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기준을 수박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고, 신규 민박사업자의 신고등록을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펜션은 농어촌민박 시설이었다. 농식품부는 가스누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기름·연탄 등을 이용하는 난방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출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난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에 가스, 기름, 화목, 연탄, 전기보일러 등 난방시설 현황을 기입토록 한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가스공급업자의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민박

사업자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전기사용법을 개정해 현재 3년마다 받게 돼 있는 전기안전점검을 매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모든 농어촌민박에는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장치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면적이 150㎡이하인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피난표지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면적이 150㎡를 넘는 신축건물의 경우는 피난구 유도등을 기존 건물은 피난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농어촌민박 강화하는 등 농어촌민박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민박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농어촌민박 신규사업자 신청을 할 때는 주택 소유권 증명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개설요건을 보다 강화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上 上和下睦  
和 화합 화  
下 아래 하  
睦 화목할 목

▷ 뜻: 위에서 사랑하고 아래에서 공경(恭敬)함으로써 화목(和睦)이 됨.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 아침 출근길 '안개운전' 주의

어느덧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일부지역에서는 봄꽃축제가 시작되는 등 따뜻한 봄기운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다.

요즘 들어서 아침 출근길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밤낮의 온도차이가 많이 나는 봄철에는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출퇴근 등 차량 운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산림이나 호수 등이 있으면 안개가 자주 끼어 있어 연

쇄 추돌 사고나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안개길 도로에서의 운전은 초보자뿐만 아니라 숙련된 사람이라 해도 운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안개길 도로를 운행할 때는 시계가 좁으므로 감속을 해야 하며 차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커브길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주행하고 차폭등이나 안개등을 켜서 내 자동차의 존재를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가 내차로부터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선 보다는 바깥쪽 차선으로 주행하고, 앞차의 미등이나 차선, 그밖에 가드레일 등을 기준으로 삼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물러, 와이퍼와 실내의 서리 제거기를 가동시켜 앞 유리를 깨끗이 하고 안개가 많이 낀날은 시야만으로는 상황 판단이 어려우므로 창문을 열어놓고 시각 뿐 아니라 청각까지 동원하여 판단하는 등 안개 낀 상태에서는 늘 다니던 길이라고 해도 평상시 보다 각별

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듯 운전 여건이 나쁜 안개 지역이라 해도 몇 가지 안전운전 요령만 익히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행복했던 가정이 슬픔으로 변해버린 모습을 수없이 지켜봐왔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당일 일기예보나 주행하고자 하는 도로 사정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우리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한선근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라자 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